

PEOPLE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농협 광주본부

고향주부모임과 침수 농가 지원

농협 광주본부와 (사)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복구 용전마을에서 재해재난 극복 클린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농협 광주본부와 고향주부모임, 북광주농협, 복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침수농가의 도배·장판 교체, 세탁, 주변 정리 등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비록 큰 도움은 아닐 수 있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재해재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니티 기초과정’ 교육 성료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은 전남지역 게임 콘텐츠 산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한 ‘유니티 기초과정’ 교육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게임 개발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유니티 인터페이스 이해 △기본 오브젝트 제작 △스크립트 기초 △간단한 게임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기초 프로그래밍 기술과 간단한 프로젝트를 직접 제작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교육은 4일부터 11일까지 전남 목포에서 약 1주일간 진행됐으며, 총 20명이 수료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지원사업’ 설명회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영광 흥농 커뮤니티센터에서 ‘2026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한빛본부는 내년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지나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한빛본부 6개 호기를 원활하게 가동한 결과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며 “군민 복지와 안전,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gp98@gwangnam.co.kr

“나주 문화유산·전설, 융복합 예술로 재탄생”

동신대 비상무용단, 창작극 K-컬처 진수 선포

‘청명淸明 : K-풍류 나주의 전설’ 공연 성료

동신대학교 비상무용단이 나주지역 문화유산을 담은 K-컬처의 진수를 선보였다.

18일 비상무용단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의 역사를 담은 창작 무용극 ‘청명淸明 : K-풍류 나주의 전설’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신대 비상무용단의 창작 작품으로, 나주 고유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K-컬처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연에는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재학생 60여명과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

또 나주 영산포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아버사’와 ‘아랑사’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은 한국 전통 풍류를 바탕으로 사랑과 평등의 메시지를 현대적인 연출로 담아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더불어 영산강 황포돛배 선착장 인근 ‘양암바위’에 깃든 이야기를 감각적인 춤사위로 표현하며, 나주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삼색 유산놀이’와 ‘배꽃놀이’를 재현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 1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창작 무용극 ‘청명淸明 : K-풍류 나주의 전설’ 공연을 펼친 박종임 비상무용단 대표(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와 출연자들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었다.

박종임 비상무용단 대표는 “나주만의 문화유산과 전설을 융복합 예술로 재탄생시켜 관객과 소통하고 문화적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삼색유산놀이와 양암바위 전설을 주제로 제작한 무용극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품

격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비상무용단은 박종임 교수를 필두로 지난 2007년 창단된 이후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을 통해 현대무용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도덕적 사명감 준수해 사회공헌 앞장서야”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

광남일보가 18일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열고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윤리강령 교육에는 이승배 부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취재·편집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부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을 통해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취재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주문했다.

이어진 광고윤리강령에서는 소비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는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소비자로부터 허위금 투기나 사생활을 부추기지 않는 등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느낄 것을 당부했다.

또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 방법과 독자불만 접수자 신원 노출 금지, 구독 중지와 관련해 회유나 강요 금지 등을 언급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엄격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8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언론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사명감을 준수해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적 정의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언론인으로서 도덕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대성인더스, 함평 수해 피해 주민에 세제 기탁

자사 브랜드 제품 ‘ZIRO’ 1000개

함평군은 최근 친환경 생활용품 전문기업 대성인더스(대표 박재상)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평군 수해 주민을 위해 자사 브랜드 제품인 ZIRO 세탁세제 1000개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성인더스는 함평군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친환경 제설제와 세제류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4년째 함평군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세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이번이 기탁된 물품을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재상 대성인더스 대표는 “최근 폭우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들에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매년 꾸준히 지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대성인더스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가 수해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광주도시공사, 부패신고 모의훈련 전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문화 활성화 위한 ‘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갑질 등 반부패 관련 사례별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배포하고, 이를 통해 훈련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날 새로 도입한 익명신고 시스템 ‘부패알리오’를 활용해 직원들이 직접 부패신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패알리오는 신고 내용을 암호화하고 IP 추적을 방지에 익명성을 100%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모의훈련에 앞서 지난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신고 시스템(부패알리오)의 운영 방식, 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포함한 부패·공익신고 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도와 관심을 높



이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부패 예방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사장은 “임직원이 부패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경험함으로써 부패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신고제도의 인식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렴한 공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자원봉사센터, 필리핀 아클란주 공무원 글로벌 연수

2차년도 코이카 사업...재난 대응 민관거버넌스 역량 강화

사단법인 광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백석)는 오는 30일까지 필리핀 아클란주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자원봉사 분야 민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2차년도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자연재난이 잦은 필리핀 지방정부에 광주의 재난 극복 경험과 민관 협력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자원봉사센터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3개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연수단은 지난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이카 성남연수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19일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인 연수에 들어간다. 교육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재난 관련 법체제와 관리조직 운영방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역할 △사회적 약자 지원을 포함한 재난 대응활동 △세



난심리 이해와 회복 지원 등 전문 강의와 현장학습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국립광주과학관과 월봉서원에서 체험 활동을 갖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남이섬 등 현장을 찾아 재난대응 및 시민 안전 시스템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kzy@gwangnam.co.kr

광양시-포스코노조 광양시지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

광양시와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최근 중마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촉진 캠페인 및 물품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접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양시와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 사랑나눔복지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는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가 구매한 450만원 상당의 식자재 등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전달됐으며, 행사 후 참석자들은 중마시장 일대에서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



양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은 “노동조합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